

2019 일곱번째

능말이야기

최만린미술관 산보
원자력? 글썄요?
아버지, 그리고 추억
우리동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정릉 시인 박병대

충남 대전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국어국문과를 전공했으며, 풀밭 동인지 「강가에서 물구나무 서기」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시집 「절벽」, 「푸른 물고기의 슬픔」이 있다.

E-mail : bcdegl@hanmail.co

정릉에서의 유년시절

詩 박병대

대청에 누워 별 속에 솟은
둥근달 바라다보는 적막의 늦가을

뽕뽕산* 너털바위에 숨어
총 쏘며 전쟁놀이하던
연 날리던
쥐불놀이하던
별 바라기로 별뚱 보며 소원 빌던
유년의 놀이터

홀딱 벗고 땀별 개천 개헤엄 치고
고무신 띄워 쫓았던 여름

한나절 꼬챙이 질 해가며 썰매 타고
언 발 녹인 모닥불에 발바닥 태워먹은
나일론양말

아련한 기억의 실마리는
꼬리지느러미 물질하며 회귀하는
물고기 떼
출렁출렁 다 넘어간 뒤에
탄주 했던
깊은 그리움은 밤길도 환했다

*뽕뽕산: 정릉 산72번지에 있는 낮은 등산. 우성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詩 정릉에서의 유년시절

우리동네 능말 04

최만린미술관 산보	06
전통문화의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10
우리 동네에 '마을광장'이 생겼습니다	15
음식을 매개로 하는 활동	18
열정골목으로 뜨는가, 정릉아리랑시장골목!	22

2019 이슈 26

원자력? 글썄요?	28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일상의 페미니스트	32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36
우리동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38

능말 에세이 44

대학과 지역의 공존	46
진애드와 능말 이야기	48
봉사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짝사랑(?)입니다	50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 읽은 것은	52
아버지, 그리고 추억	56

능말 발언대 60

가장 고통받는 청수장 사람들의 도덕, 정릉공영차고지	62
마을과 청소년을 잇는 정릉 청소년 휴카페	66
변화하는 정릉천변 풍광	69

포토에세이 72

2019 우리들의 이야기 76

능말사진첩 80

우리동네 능말

- 최만린미술관 산보
- 전통문화의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 우리 동네에 '마을광장'이 생겼습니다
- 음식을 매개로 하는 활동
- 열정골목으로 뜨는가, 정릉아리랑시장골목!



최만린 미술관 산보

김란기 · 이구경 주민기자

최만린 가옥이 이처럼 근거리에 있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줄 알았다면 이제야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게는 그 만큼 여유가 없었다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은 너무 멀리 있을 것이라는 선입감 때문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가 최만린의 자제분이 후배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해야 한다는 고지식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함도 옳을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모처럼 행사가 기획이 되어 후배를 동행하지 않고도 이제는 '최만린미술관'이 된 최만린가옥에 가게 되었다.

사실 그가 조각가라는 사실만으로도 건축과 같은 공간 혹은 형태 예술임을 감안할 때 진작 뵈고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야 했다. 그의 자제가 건축공부를 하고 지금은 후학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부친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창시절 후배의 인상에서 본다면 그의 부친은 아무래도 상당한 정신 경지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작품으로 구현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도 있다.

최만린은 생의 신비의 문제를 중요시하여 탐구적인 여러 관점으로 자신의 우주관을 피력하고 있다. 생명체의 발현과 그 현존성이 모든 학문적인 탐구의 공통된 문제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에서, 최만린 또한 이 문제를 조형 영역의 중요한 과제로 본다.(임영방)

최만린 작품의 중심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한다(임영방)

1. 형태의 원천적인 모체를 찾는다.
2. 생(生)은 형태이고 형태는 생의 현현이다
3. 점(點)은 원초적인 형태의 기점이다

공식 명칭 ‘성북구립 최만린 미술관’은 최선생이 정릉에 들어와 살면서 손수 집을 짓고 작품을 한 산실이기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된 것은 당연하다. 개관 행사로 마련한 ‘공공화원 연계 집담회(2019. 10. 31)’에서 박신의 교수의 ‘국내 외 역사 및 문화예술인 가옥의 공공화와 활성화-리빙하우스 개념을 중심’, 이영범교수의 ‘문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예술인 가옥의 공공자산화’, 최호진 소장의 ‘테마가 있는 역사가옥의 공공화 과정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이 발표되어 문화예술인 가옥이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지난 2019. 10. 31일 개관한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실내 모습



- ▼조작가 최만린선생님이 그의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있다.(영상 캡처)
- ▶개관하던 날 '공공화원 연계 집담회'가 열렸다.



이 가옥은 최만린이 1964년 처음 정릉으로 들어와 지은 집은 아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80여평의 땅에 손수 집을 짓기 시작한다. 정릉천 바닥 모래를 채로 쳐서 만든 벽돌을 사서 지었다고 했다. 겨울에는 집짓기를 멈췄다가 봄이면 다시 짓기를 계속했던가 보다. 요즘 필자가 정릉천변 가옥에 공간을 개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했던가? 그런데 그때 지은 집은 13평 4홉이었다니 요즘 생각하면 그 작은 집에서 아내 김소원(당시 인기 절정 어나운서)와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터는 넓었으니 어쩌면 그의 작업에 더 많은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70년대가 되면서 정릉은 개발붐이 불어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네모반듯한 필지들로 나눠지게 되어 최선생네는 그 중 하나를 구입하여 새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이 오늘



조작가 최만린의 작품세계를 잘 나타내는 작품 하나

의 ‘최만린미술’관이 바로 이때 지어진 집일까? 많은 기사에서 이 집은 1988년부터 살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1970년대에 지은 집과는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일까?

그나저나 최만린의 조각작품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뭘 만들었을까?

사람을 조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작품을 추상조각이라고 할까?

다시한번 최만린미술관에 들러 그가 기증한 그의 작품을 찬찬히 음미해볼 일이다.

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 <사전 개관 프로젝트>

- 전시기간 : 2019.10.10.~ 11.30.(매주 화-토) 10:00-18:00
- 전시장소 :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 관람료 : 무료
- 주최·주관 : 성북구·성북문화재단·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지개다리사업)
- 전시내용
 - 수장고 개방전 <0 컬렉션>: 1층 수장고 일부 공개, 대표 소장 작품 15점 전시
 - 자료실전 <조각가의 서재>: 최만린 작가 관련 책, 조각 중 심의 도서 전시
 - 2019 성북도큐멘타6 <공공화원(公共化院)>: 최만린미술관 설립을 계기로 공공화된 성북 문화예술인 가옥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성북의 여섯 번째 아카이브 전시 프로젝트
- 오시는 길 :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7길 23 (정릉동)

전통문화의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정릉아리랑시장 보나칼롱 카페

권기정 보나칼롱 대표

3년 반 전 처음 들어 온 정릉로26길은 참 신기한 골목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70년대 느낌의 한옥군집과 폐가들 80년대 건물과 2000년대 건물들이 이 골목 안에 고스란히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한복문화카페 보나칼롱

보나칼롱은 '좋은 멋부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나는 한문으로는 '보배보 아름다울나'이며 영어로 Bona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칼롱은 경상도 부산사투리 '칼롱부리다' 즉 멋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랑살랑한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맛을 부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나칼롱 권기정대표가 우리 옷 만들기 강의를 하고 있다.

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 옷 한 벌이 오래도록 입혀질 수 있도록 조상의 지혜가 담긴 슬로우 패션을 지향합니다.

과시가 아닌 경험을 위한 좋은 통과 의례하기를

오랫동안 한국전통잔치문화를 연구해왔습니다. 전통돌잔치, 혼례, 수연례를 전통의 가치는 살리면서 스타일링은 현대적으로 올바르게 재해석해서 제안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통의 가치는 살리되 각 가정의 색깔과 가족의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색을 만났으며 그 색으로 인해 저 또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릉로26길 사흘마켓

동네사람들을 알아가고 동네사람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들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사흘마켓이라는 골목마켓도 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흘마켓이 손재

주 있으신 분의 인큐베이팅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때의 인연으로 아직까지 카페에서 작품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경험을 파는 한복디자이너

잘 지어진 좋은 한복을 입는 경험을 통해 한복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심한 상담, 좋은 소재, 입는 사람을 배려한 디자인, 조금 느린 바느질, 공예적 디테일 올바른 손질 및 보관방법 등이 잘 지어진 한복의 경험의 요소들입니다.



능말 기지단이 보나칼롱을 방문하여 권기정 대표와 상담하고 있다.

한복을 맞추는 데는 개개인의 디테일 사항으로 심도 깊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 당일에는 꼭 한복 상담 받으러 갈 때는 화장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화장 안한 맨얼굴로 한복입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혼주한복일 경우에는 자녀의 수와 성별, 결혼여부 등이 신랑신

부 한복일 경우는 자녀계획 형제들의 결혼여부 등을 고려한 다음 소재와 디자인이 결정됩니다. 상담의 디테일에 따라 좋은 한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니 단 순히 원단만 얼굴에 대어보고 전통은 이런이런 색을 배색만 한다고 해서 좋은 한복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한복도 아이의 성장속도 피부톤 나이 대에 맞는 색이 있습니다. 가령 3살 이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따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동한복을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4살이나 5살이 되면 본인이 좋아 하는 색이 생기게 되며 여자 아이들은 일명 오직핑크 그리고 드레스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시기의 시작이므로 이때 사는 한복은 그걸 고려한 생활한복이나 신한복 위주로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저는 아이한복은 한번 사면 3년은 입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랑 꼭 같이 입혀 보고 조금 큰 것을 사주어 살

딱 안을 넣어 입히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복은 아이들 저마다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돌잔치 장소와 돌상스타일링 컬러도 다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돌복을 대여하실 때는 엄마아빠 한복 혹은 입으실 옷들 장소 돌상사진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과 잔치 당일 입은 경험 그리고 입은 한복을 손질하고 보관 과정을 통해 한복이 단순히 불필요한 혹은 실용적이지 못한 옷이라는 오명을 벗기고 싶은 바램입니다. 그 바램이 정릉에 와서 10년 넘게 파고든 아이를 위한 생활한복으로 2018서울여성공예소전 입상, 2018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동상 수상했습니다.



팔색조 같은 공간

보나갈롱은 동네 사랑방으로 아침에는 옆집 어린이집 엄마들의 티타임 힐링카페로 교수단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단골 맘과 단골들로 정이 넘치는 카페로 핸드메이드 공예가들이 모일 때는 공예품카페로 정릉도서관 가족들의 배려로 독서모임 할 때는 북카페로 마을기획단이 모이면 마을카페로 도란도란 모여 바느질 할 때는 바느질카페로 주말에는 돌잔치 스냅촬영, 부모님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수스냅 촬영으로 스튜디오로 변신합니다. 팔색조 같은 한복카페 보나갈롱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손님들께서 걱정도 해주시지만 그만큼 좋아도 해주셔서 늘 감사하답니다. 다만 제가 정리고자라서... 2019년에는 정리고자에서 탈출하고 싶답니다.





2019년 핫한 정릉로26길

요즘 정릉에서 제일 핫한 골목이 되었습니다. '유퀴즈온더블럭'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연이은 매스컴 노출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목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퀴즈에서 저희 카페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유재석씨가 훗날 이 골목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전 이 골목이 여성공예가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곳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엄마 나눔 머릿속에 맴돈 세 단어

딸아이를 키우면서 오랫동안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엄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 엄마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볼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또 옷을 지으면서 여러 시니어 소잉마스터들을 만났습니다. 한평생을 해온 기술을 배울 이 없는 상황을 보고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공예 기술들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엄마들의 자립에 도우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일입니다.”

공예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배우고자 하는 미혼 부모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공예가분들과 협동조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나때때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5%는 적립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나칼롱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리동네에 마을광장이 생겼습니다

고경남 정릉마을주민 / 공감테이블 대표



마을광장이 조성된 후 정릉시장 환경개선을 축하하는 공연이 2019년 4월에 있었다.

생각해 보면 원래 있었던 공간이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 공간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문이라고 할까? 어쨌건 그런 느낌이다. 우리 동네에 생긴 마을광장 말이다.

많은 아이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부모들, 그저 그 모습이 감사한 할머니, 할아버지, 상점에 앉아 멍하니 광장바닥에 뭔가 그림을 그리는 듯한 청년들...

우리 곁에 온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마을광장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마치 몇십 년 전 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을광장을 누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다.

끝이 언제 인지, 기약이 없을 것 만 같았던 공사의 시작..... 시작과 동시에 소음과 먼지 그리고 산책로가 끊기게 되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매월 4월말이면 시작되는 개울장이 연기가 되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렇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장장 12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마을광장이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생각보다 넓고, 기대이상의 모습으로 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스멀스멀 입가에 미소가 지어 졌다. 광장이 드디어 생기는구나~!! 앞으로 광장에서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인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드디어 마을광장의 공사가 종료되고 공식오픈하기가 무섭게 광장에는 놀이터가 아닌, 공원이 아닌 또 다른 광장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릉 지역에 갈 곳이 없었구나, 정말 필요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무언가 행사 같은 이벤트가 있지 않더라도 무료함을 달래기에는 마을광장은 존재만으로도 큰 역할을 이미 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광장, 빈 공간이 주는 여유, 이런저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즐거움, 만남의 장소로 반가운 기대를 갖게 되는 미소가 광장이 우리에게 온 후의 변화 인 것 같다.

마을광장이 생기기까지, 묵묵히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광장이 시장 안에 있는 이유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릉시장 상인회의(백재선 회장) 상상으로 시작한 제안이 행정과 연결이 되어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거쳐 마을광장이 탄생 하게 된 배경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릉시장 마을광장이 조성된 후
2019년 10월에 러시아청소년
초청공연이 있었다.



러시아청소년 초청공연에 많은
정릉 주민이 참석하여 이색적인
공연을 즐겼다.

최근에는 정릉시장안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덕분에 마을광장의 또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시간을 기억해 버스킹 공연을 찾는 주민들도 꽤 늘었다고 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흐르는 소리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이 공연을 즐기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하는 장르를 신청하거나, 앵콜을 외치고 있다고 하니 광장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산책과 광장, 동네사람, 시장, 음악이 어우러진 '우리동네 마을광장'이 참 좋다!

음식을 매개로 하는 활동

박솔바로 일문화기획 제철과일(season&work)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일 점심, 새로운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를 기획한다고 한다. 이 점심식사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 단위로 움직이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 새로운 사람과 네트워킹할 유일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매일 같이 일어나는 ‘밥 먹는 시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내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낳(수 있)는 ‘사회/문화적 행위’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사람과 만나 식사하기’가 경영이나 정치외교 활동의 일환이었을텐데, 이는 딱히 정답이 없어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계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액면 그대로 ‘네트워킹’으로 바라보는 수 많은 프로듀서/기획자들도 있을 것이다.



WED에서 김지은 진저키친 대표의 요리를 시식하고 있는 방청객들의 모습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이 ‘식탁’에서 일어난다. 식탁은 필연적으로 모임과 만남을 만들고, 이 모임과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낳는다.

성북구 정릉에는 이런 식탁문화가 기획, 실행되는 공간이 있다. 바로 ‘공유 주방’ 청년살이발전소이다. 성북문화재단이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청년문



대파새우파스타



부채살스테이크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샌드위치

화기획사 '제철과일(season&work)'은 청년살이발전소를 운영하며, 음식을 매개로 강연과 커뮤니티를 프로듀싱하고 있다.

강연은 'WED'라고 하여, Work, Eat, Drink의 약자로 쿠킹쇼의 형식을 한 강연 행사. 요리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계기로 요리하는 삶으로 전환한 사람들, 즉 타업계 요식업계로 직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와 음식이 함께 하는 강연형 쿠킹쇼 행사이다. 2019년 12월 중순 현재, 총 10명의 강연자가 등단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고, 연말시상식인 2019 WED Awards를 23일에 앞두고 있다. 강연자들 중에는 성북구에서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릉동의 슬로카페달팽이를 운영하는 최영미 슬로푸드활동가(전 잡지사 기자), 월곡동의 빈스앤타임 박상협 대표(전 컴퓨터 총판), 비너발트 육동주 대표(전 산악인), 엘마드레 이남주 대표(전 모델 에이전시 운영)가 있다. 이 외에도 성북구 외 타지역구는 물론, 충청도에서 쿡을 발효시키는 장홍석 파아프 대표나, 사과로 술을 빚는 프랑스인 도미니크 레돔 대표(전 컴퓨터 엔지니어)까지 식탁이 미치는 범위는 성북구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영감과 기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커뮤니티는 'ClubComb'이라 하여, 1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멤버로 구성되어 평소에는 국내에 소개하고 싶은 해외의 식문화를 리서치하여 발신하고, 정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요리도 해먹고 워크숍 시간 등을 갖는 성

장/계발을 도모한다. ClubComb의 기획자로서 멤버들이 발굴하는 해외의 사례가 국내에서 삶과 일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힌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외에도 제철과일(season&work)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호스트를 섭외하여 약 5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착순으로 신청해주시는 분들께 빈 시간대에는 이 공유주방을 무상으로 대관하여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식탁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유주방’ 청년살이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철과일(season&work)에겐 정신적 지주/사외고문과도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는 바로 슬로카페달팽이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미 대표이다. 청년살이발전소와 슬로카페달팽이는 모두 정릉시장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는 약 200미터로



달밤식탁 주인장 에이코가 시연한
시그니처 감자샐러드,
템페 오징어 야끼소바



청년살이발전소 외관사진

2019년 12월 9일, 전 디자이너가 창업한
해방촌의 맛집 진저키친의 김지은 대표
와 함께 WED 포스터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 제철과일 청년들



제철과일의 청년들은 언제든지 슬로카페에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구해왔다.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잦은 요청에도 언제나 빠르고 흔쾌히 대응해 주시는 최영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 제철과일과 최영미 대표의 관계조차도 슬로카페에서 만 3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식사모임 '식9데이'에서 시작된 것이니, 식탁이 수행하는 기능에 톡톡히 혜택을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제철과일은 최영미 대표를 WED의 강연자로 섭외하거나 다른 행사의 워크숍을 부탁하기도 했고, 슬로푸드연례행사 부스에 참가해 함께 판매를 지원하는 등, 두 주체는 다양한 형태로 협력해왔다. 그 외에도 제철과일은 식9데이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 이를 테면 영상촬영제작 전문가, 농촌문화교육기획자, 동북아평화연대대표(정릉 주민)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각종 행사에 자문부터 현장협력까지 실행해 왔다. 제철과일이 좋은 사례가 되어 정릉동 주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요로워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 낙후성이 남아 있는 아리랑시장

열정골목으로 뜨는가? 정릉아리랑시장 골목!

김란기 주민기자

신덕왕후 묘지가 있는 정릉의 초입 아리랑시장이 노후화를 멈추고 다시 활기를 띠게 될까? 마을 책방 ‘호박이 녀쿨책’이 아리랑시장 뒷길로 이전하였는데 시장 거리보다는 시장 뒷길 골목이 눈에 띄는 변화의 초기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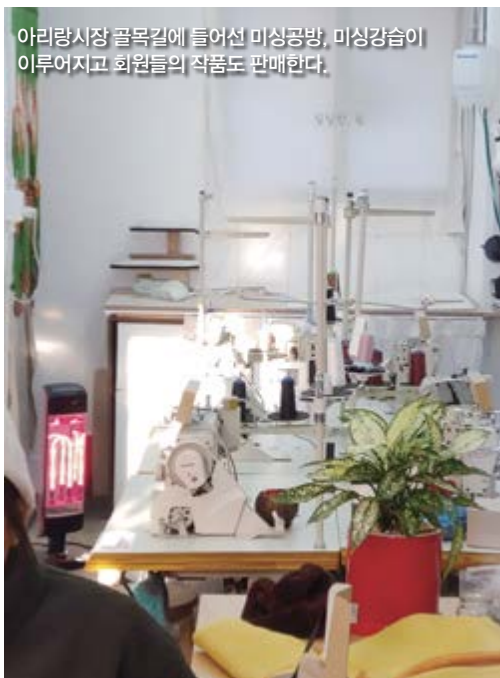
이것은 아무래도 경전철역이 들어서고 난 후의 변화의 조짐이다. 보국문역(북한산보국문역, 서경대역) 인근의 변화의 모습과 함께 정릉역(국민대역) 부근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리랑시장 옆 골목은 알게 모르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골목 안에는 미싱공방과 양식 레스토랑이 눈에 띄며 3년 전에 들어왔다는 ‘보나잘롱 한복공방’ 역시 이 골목 변화의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지난 6월 ‘유퀴즈온더블럭’의 게그맨 유재석과 조세호가 이 골목을 다녀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데 유재석은 안암골까지 가면서 모교 용문고 근처까지 가서 후배들과 마주치기도 했던가 보더라. 어쨌거나 이 일행이 신덕왕후의 묘지인 정릉을 답사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리랑시장 골목까지 누볐는데 그 후폭풍도 좀 있었던가 보더라.

후폭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이 골목에 집중하여 이들이 들렸던 음식점도 재미라면 좀 봤던 모양이더라. 사실 이전까지 이 골목이 무허가 건축물이 즐비하고 추어탕, 갈비탕, 백반집 등 재래식 음식점들이 듽성듬성 있었지만 요즘은 가옥을 가게로 리모델링하는 광경도 눈에 띄고 있다더라.

한편 정릉의 가장 큰 시장인 정릉 시장도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는데 3-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곳곳에서 중국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인근의 대학에 중국유학생들이 대거 진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더라.



아리랑시장 골목길에 들어선 미싱공방, 미싱강습이 이루어지고 회원들의 작품도 판매한다.



시장 안에 있던 '호박이 넝쿨채'이 골목 안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꾸미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경전철 보국문역 인근에도 편의점이 크게 생기고 생동 위치에도 커피숍이 개설되었고 유리창 반짝이는 교회 앞에는 계단식 광장이 조성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쪽에서 서식하는 김모씨도 집수리를 하면서 옛 '끼데끼데'를 살려 '필름갤러리'인지 '북카페'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이더라. 김씨는 정릉일대가 소설가 박경리, 화가 박고석, 음악가 금수현, 고바우 만화가로 더 알려진 김성환, 그리고 최근 자택을 미술관으로 변화시킨 최만린 등 문화예술인들이 산거하여왔음에 착안하여 인근의 주민과 문화예술계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기대가 상당하다고 하더라.



요즘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 옷 공방 보나갈롱이 카페를 겸하면서 아리랑시장 배후 골목에 활기를 일으키고 있다.

어쨌거나 앞서 이야기한 아리랑시장 골목이 수공예적인 공방거리로 서서히 변신을 한다면 노쇠해가던 아리랑시장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고 보국문역 인근도 최근 청수골 상권이 북한산 등산객의 감소로 이전보다 못 한 면을 상쇄시켜주는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나저나 아리랑시장 골목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 뭐시냐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뭔가 그런 병에는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병에는 약도 없다는디!

2019 이슈

- 원자력? 글썄요?
-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일상의 페미니스트
-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 우리동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원자력? 글썽요?

홍선휘 주민기자

아래 글의 내용은 이 책 농말이야기와 독립된 필자 자신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대학시절 여름방학때 일본의 릿쿄대학 남학생들과 경기도 시골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었다. 우리가 밤마다 각자 모국어로 신나게 불러대던 <우주소녀 아톰>, 그 만화영화가 원자력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음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원자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무기로서 그리고 에너지로서 활용된다.

'북핵'이라는 단어는 반세기 가까이 뉴스의 주요 키워드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해왔다. 상대적으로,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정

서가 지배적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가 경제적이다 깨끗하다, 안전하대라고 홍보를 해왔으니까.

사실, 한국은 원폭피해국으로 1945년 8월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7만명이 사망했고 2세 3세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

국내 원전 현황





원자력 발전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 그들의 실상이 다루어진 적이 없다. (현재 서울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정릉주민이다.) 핵발전소 폭발시세는 연료봉 폐연료 플루토늄 등으로부터 방출될 방사능으로 핵폭탄보다 그 피해가 훨씬 크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와 후속 재해에 대하여 일본언론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보도한 국내 언론 덕분에 이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감지하는 했으나 여전히 불감증. 한반도는 지진지대가 아니라던지 대안이 있느냐며 정서적으로 '무방비' 상태이다. 후손의 미래를 담보로 자연을 훼손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온 우리의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행위 탓으로 이제는 지진과 해일로부터 예전만큼 안전하지않다. 후손들이 환경 난민이 될 수 있다.

동해 남부 해안가 5개 지역 발전소(고리 영광 월성 울진 또 한군데가 ??? 영덕이었나 거의 대도시 인근)에 23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로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설계 제작했으며 90년대부터는 소위 한국형이라고 불리는 방



탈핵반대 국토순례

식 - 해외 설계를 우리 힘으로 제작해왔다.

고리 1호기 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기장산 지역은 미역의 대명사일 정도였으나 이제는 가장 아닌 국내산이라는 표기가 대부분이다. 이를 인지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키운 채소를 먹는 경주 아이들이나 송전탑을 반대해온 밀양 할머니들의 탄식위에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있다. 동해안 남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는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에도 공급되어 주민들은 반팔에 슬리퍼 차림으로 대형 마트를 오간다.

원전덕택에 전기값이 싸다고 알고 있지만 더 큰 혜택은 기업이 누리고있다.

고리 1호기는 40년간 가동후 2017년 사용 중지됐고 현재 해체 준비 과정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직후인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차기 정권에 따라 미래는 불투명하다. 국내에서 운전중인 원전의 부실 상태 (지면 부족으로 열거하지않는바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검색하기를 권한다)와 환경 파괴 및 대형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감증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의 인식도 탈원전에 부정적이다.

원전사업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분야는 건설, 설비 구축이기에 재벌사들이 도맡았다. 한수원과 원자력 기술 기업과 관련 학계도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일본의 경우, 한 사회학자가 마피아라 불리기도 하는 관련 집단에 대한 책을 저술해 한국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라는 제호로 출간됐다.

국내 판로가 막히자 한수원과 원전 기업은 원전수출을 위해 체코 카작스탄 이집

트 등 5개 국가에 공을 들고 있다. 과거 정부하에 아랍에미레이트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했다. 못마땅한 사태이다. 해체 산업 개발로 유휴 인력을 흡수함이 바람직하다.

호미로도 가래로도 형세를 바꾸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제 에너지의 윤리적인 생산 소비 순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착한 소비란 반경 3킬로 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니 에너지 발전소를 위한 모임이 정릉에서 세워질 날이 올까?



이원영 교수 전세계에 탈핵반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일상의 페미니스트

목소영 주민기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져 마치 '관습'처럼 변해버린 틀 안에서 김지영, 그리고 한국 여성이 겪은 일상을 거울로 비추듯 그려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김지영 씨가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듯,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일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김지영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14년, 대한민국 기혼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결혼, 임신, 출산, 어린 자녀의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 「82년생 김지영」 中 -

2019년은 어떨까? KB금융경영연구소가 12월 8일 발표한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킹맘이 본인을 위해 쓰는 여유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평균 1시간 51분. 주말까지 포함한 이 여유시간은 사실상 퇴근 후 가족을 돌보고 잠들기 전까지 잠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그 정도의 시간이다.

김지영은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잘 알면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억울함과 상실의 감정은 ‘왜 나에게만’이라는 질문이 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 파장은 ‘왜 여성에게만’, ‘왜 누군가에게만’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정치적 논쟁이 되었다.



페미니스트는 유별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김지영이라고 느낀다면, ‘79년생 목소영’도 페미니스트다.

3년 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영화로 만들어 졌을 때, 누적판매부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관객은 300만 명을 넘겼다. 가히 신드롬이라 부를 만 했다. 그리고는 오래됐지만 여전한 ‘페미니즘 논쟁’을 끄집어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는 물론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각 분야 저명인사들의 성범죄로 인한 미투 운동 촉발은 한국사회의 젠더감수성에 커다란 번곡점을 그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 될 때마다 ‘82년생 김지영’은 소환되었다. 어떤 때는 문제제기용으로, 어떤 때는 연대와 지지의 도구로 ‘82년생 김지영’은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

‘82년생 김지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여져 마치 ‘관습’처럼 변해버린 틀 안에서 김지영, 그리고 한국 여성이 겪은 일상을 거울로 비추듯 그려냈다. 김지영

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나 자신이자, 내 주위의 이웃이다. 평범한 가정 속에서 성장해 고등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쌓고 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한 명. 하지만 그 일상은 나날이 쌓이고 쌓여 염증이 되었고 끓았고 터졌다.

회사원 신분의 지영 씨는 동료 남자 직원에게 씁쓸한 승진 축하 인사를 보내야 했고, 능력 있는 김팀장은 승진에 한계를 느껴 회사를 나와야 했다. 기업 내의 유리 천장은 매우 견고하고 딱딱하다. 개인이 나서서 깨부수고 탈출할 수 없다. 이는 구조적 문제가 되어 여성을 한계 짓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할 곳에서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돌멩이가 되어 길을 막는다. 게다가, 워킹맘인 김팀장은 회의 중 업무와는 상관없이 “애가 엄마 손에서 안 커서 되겠냐”는 말을 들어야만 한다. 성차별적 언행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분위기를 형성하며 하나의 기업문화를 만든다.

엄마 신분의 지영 씨는 더 이상 일을 이어갈 수 없다. 멋진 커리어우먼으로서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해나가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사라졌다. ‘경단녀’가 되어 아이와 가정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간다. 뭐라도 해볼까 하여 집 앞 빵가게의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바라보지만 쉽지 않고, 같이 일을 하지 않겠냐는 김팀장의 제안은 사회적 압박과 시선이 허락해주지 않는다. “구구단 가르치려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아이 동화책 읽어주려고 연기를 전공했다”는 어린이집 엄마들의 우스갯소리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씁쓸함을 불러온다. 지영 씨가 육아에 지쳐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공원에 나와 커피를 마시자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커피 주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맘충’이라고 말한다.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생활도 꿈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더니 벌레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지영 씨의 말은 가슴에 와 박힌다.

‘82년생 김지영’ 속에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 본 것만 같은 갖가지 무례와 폭력이 지겹도록 나열되어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만 위하는 아버지를 필두

로, 끈적끈적한 농담을 더럽게 뱉어내는 직장 상사, 숨어서 촬영하고 모여서 관음하는 내 주변 동료이자 성폭력 가해자.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한 멀스름하게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이르기까지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은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걸 견디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일상이다.



1999년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2001년 처음으로 여성부도 출범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성 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성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에 내재화되고 관습화 돼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우리는 모두 김지영’이라는 여성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이유다. 이 시대 차별받는 여성의 상징이 된 ‘82년생 김지영’은 그 공감대를 발판으로 평범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일상의 페미니스트들을 깨우고 있다. 페미니스트는 유별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김지영이라고 느낀다면, ‘79년생 목소영’도 페미니스트다.

UN 여성친선대사로 위촉됐던 배우 엠마 왓슨의 UN연설을 되새긴다.

“만약 당신이 평등을 믿는다면, 당신은 무의식중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일지 모른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거나, 본인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딸이 행복한 미래를 바란다면, 이미 우리는 페미니스트로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김정범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걸고 선거에서 이겨 이뤄진 정부다. 취임 초부터 검찰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제 정권의 임기가 중반에 다가서면서 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곧바로 그만둔다. 보수 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방편으로 검찰개혁을 극렬하게 반대한다. 수구적인 검찰조직은 부화뇌동하면서 조직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분열을 이용하였음은 당연하다. 보수언론도 좋은 먹잇감을 두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리저리 물어뜯으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시킨다.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급기야 일부 양식 있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들고 일어서면서 서초동에 모여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 수십만의 시민이 참가하여 검찰권력, 정치검찰의 개혁을 외쳤다.

다. 촛불에 놀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몇 가지 형식적인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부가 여러 안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파견 축소,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 금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위한 전문공보관제 도입, 직

접수사의 최소화 등을 밝히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개혁방안을 쏟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다. 사실 이러한 개혁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개혁이라고 칭할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잠잠해지면 언제든 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검찰권력이 객관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과 유착해 일반시민들을 희생시켜왔다. 정권의 시녀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검찰이었던 셈이다.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손봐



주기 수사, 권력층에 대하여는 봐주기 수사를 일삼아 왔다.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지나치게 비대한 힘을 가지고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보니 재벌이나 권력자에 대하여는 눈감아주는 수사를, 일반 서민들이나 힘없는 경제 집단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수사를 자행하면서 희생양으로 삼았다.

국가권력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가권력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 또한 국민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도 객관적인 수사기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며, 수사권을 경찰과 공수처에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권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그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과도하게 권한이 배분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객관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동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이상림 주민기자

성북동 동구여중의 지난여름

2018년 여름 성북동 일대에 현수막이 걸렸다. 온통 “교장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동구여중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동구여중의 빠른 정상화를 원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동구여중은 공교육 기관임을 잊지 맙시다” 등 100여 개의 현수막이 온 동네에 휘날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동구여중은 성북동에 위치한 학원법인 동구학원 산하 중학교로 오환태 교장이 2018년 1월 직위해제인 상태로 교장 없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치루어야 했다.

성북동 일대에 현수막이 걸렸다



동구여중의 학부모들은 교장이 공석인 상태의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간담회, 지역 주민과 구·시의원, 구청장 후보 간담회, 이사장 면담 신청, 야외집회, 서울시교육청 방문, 동구여중 교감 면담, 임시학부모총회,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교장 직위해제의 이유가 부당



학교정상화를 위한 동구여중 학부모회임시총회

하고, 교장 부재로 인해 학생들과 교사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행정이 파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인사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라는 벽에 부딪혀 학부모들의 노력은 번번히 좌절되었다.

사실 사립학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비의 90퍼센트 이상이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사회가 마치 학교 주인인 것 마냥 교사에 대해서 징계권을 남발하고, 학부모, 마을 주민 등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일방적 배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누구 개인의 사적인 영리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5일 동구학원과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동구여중 오환태 교장은 복직되었다. 1년이 넘는 기간의 교장 임명취소, 직위해제, 파면의 고통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복직된 날 오환태 교장은 교장의 축사도 없이 입학하고 졸업해야 했던 두 학년의 학생들에게 뒤늦은 축사를 전달해야 했던 눈물겨운 시무식을 치렀다고 한다. 이렇게라도 지역의 명망 있는 동구여자중학교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다시 한번 동네의 학교,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학(私學)에 대하여



사학 문제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우리나라 사학 문제의 현황을 상세히 정리한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정대화 역음)에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학 문제의 기원을 세 가지로 설파했다. 첫째 ‘사학의 시작이 해방 직후 토지개혁을 회피하는 방법이었고, 이후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국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비영리의 공익적 활동이 어려울 교육 사업이 돈벌이라는 영리 목적에 맞추어졌다는 것이 사학비리 발생의 배경’이라



상지대학의 민주화 투쟁을 그린 영화 <졸업>

“<졸업>은 한 대학교가 실현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필수 관람' 다큐멘터리이다. 사학비리 재단 대학교에게 등급에 감점을 주어 오히려 사학비리를 숨기게 만드는 교육부와 사학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을 수업이 아닌 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검찰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문제를 이들은 지적한다.”

- 씨네리wa인드 2019.11.1. -

는 것. 둘째 '이러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학과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국가가 그들의 비리를 감싸주면서 권력과 사학 사이에 부패의 공생관계가 구축되어버렸고', '사학이 그 자체로 권력의 일부가 되어 보수정치세력과 보수권력을 지탱하는 강력한 사회적 토대가 되어 사학비리를 감독하거나 사립학교법 개정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지대학은 사학비리로 얼룩진 학교로 인식될 정도로 40여 년의 세월을 재단 탄압과 사학비리에 맞서 싸워왔다. 이 학교는 1970년대 설립자 논쟁으로 시작해서 입시부정, 교권탄압, 족벌운영, 용공조작,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록



사립학교법인의 징계권 남용 위험 확인을 위해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까지 '사학비리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였고, 김문기 전 이사장은 부정입시와 부동산 투기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2016년에야 비로소 대법원이 '사학 분쟁조정위원회'의 불법을 인정하며 상지학원 이사 전원 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재단을 몰아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상지대의 민주화 투쟁을 그린 영화 <졸업>이 지난 11월 7일에 개봉되었는데 박주환 감독은 상지대 졸업생이며, 개봉된 후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가

2018년에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로 매스컴이 뜨거웠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 전국 1878곳의 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

리가 적발되었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교비를 명품가방과 성인용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원장 가족을 보조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를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는 등 회계부정 사례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1년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사유재산화’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학교들의 뿌리 깊은 관행과 ‘교육 마피아’라 불리는 수호 세력으로 인해 법 개정이 힘들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다른 곳보다 정의로워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아무리 진학과 취업에 사활을 거는 사회일지라도 학교에는 옳고 그름을 배워야 하는 어린 학생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그 터전인 학교는 어떠한가 할까 라는 질문을 새삼 하게 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치원 3법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비리로 얼룩진 우리나라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탈바꿈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능말 에세이

- 대학과 지역의 공존
- 진애드와 능말 이야기
- 봉사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짝사랑(?) 입니다
-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 읽은 것은
- 아버지, 그리고 추억



대학과 지역의 공존

양순임 주민기자

대학은 가장 보수적인 세대가 가장 진취적인 세대를 가르치는 모순적인 공간이다. 한편 세대의 긴장관계가 항상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투영해왔다는 점에서 보편적 공간이기도 하다.

1960년 4월, 1987년 6월처럼 진취적인 세대의 끌어당김이 강할 때는 보수적 세대도 청년의 진취성에 이끌린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한걸음씩 진보해왔고, 최근 9년간 보수정권 시절 보수적 세대의 억압이 드셀 때 청년의 진취성은 억압당하고 대학은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지나온 우리의 자화상이다.

대학이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 연계 수업, 지역 참여 프로젝트 등 지역으로부터 배우거나 지역을 변화시키는 상생모델 작업이 활발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학의 자원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덧 대학은 지역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학의 노력에 비해 지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가(大學街)는 흔히 대학이 있는 '거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올바른 뜻이다. 대학가를 유흥과 소비를 위한 거리로만 이해한다면 대학생은 객이고, 소비의 주체일 뿐이다. 기숙사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은 대학에 대한 지역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제 지역도 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이다. 우선, 지역의 대학이 배출한 인재를 지역 자산으로 남기려는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



지역과 지역의 대학이 만나면 소통과 공존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양성, 지역내 공동체의 다양성이 증시되는 요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문화, 경제, 사회적 생태계의 모든 줄기가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지역을 탐구하고 지역에 스며들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구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성북은 대학이 많은 지역이다. 7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자치단체! 성북 외에 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때문에 성북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젊음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지역이다.

성북은 역사와 문화라는 보수적 콘텐츠 위에 서 있는 지역이다. 성북에서만 평생을 사신 분들이 많고, 종종 몇 세대에 걸쳐 사시는 분들도 있다. 반면 가장 젊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살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만드는 성북의 미래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이 전제될 때만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이다.

진애드와 능말이야기

윤미향 진애드 대표

2013년 곱게 물든 단풍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는 늦가을, 반가운 손님이 진애드 사무실로 찾아왔다. 평소 '동북아평화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는 홍선휘 공동대표께서 방문하셨다. 정릉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릉지킴이' 활동을 모은 마을 잡지 '우리동네 능말'의 편집 및 제작을 함께 해보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홍보 기획, 출판 디자인 및 제작을 해왔지만 동네 잡지를 만들기는 처음이다. 단번에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서울은 오랫동안 한곳에 정착하여 살아 마을의 이야기들을 간직하며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마을 주민들이 별로 없다. 거대해진 서울은 마을공동체를 이루던 옛 정서를 잃은 지 오래다. 경제적, 교육적 등등의 여러 이유로 자주 사는 곳을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또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점점 더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 및 폐쇄된 생활 패턴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런 서울에서 마을지킴이들이 마을의 역사와 전통문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람과 사람의 모임 등 정릉의 정서를 지키려 한다는 것은 무척 호기심을 자극했다. 더욱이 그 곳이 정릉이라는 것에 더 마음이 끌렸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한 내가 아는 서울 중에서도 이름을 들으면 정겨움이 느껴지는 몇 곳 중, 한곳이 정릉인 까닭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나만이 갖는 감정이라고만 생각지 않음은 무슨 고집일까? 내 기억 속 어느 때쯤, 정릉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이리라!



◀ 진애드에서 윤미향 대표와 능말이야기
일곱 번째 발간 회의를 하다

▼ 능말이야기 2012년 창간호부터 2019년
7호까지 함께 한 진애드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한 달에 1~2번만 쉬고 항상 아침에 출근했다 늦은 밤에야 귀가하셨다. 그런 바쁜 삶에도 쉬는 날 식구들과 서울에서 좋다고 소문난 계곡을 찾았다. 그 중 한 곳이 정릉계곡으로 기억한다. 가져간 수박과 참외는 돌로 계곡을 막아 물속에 담그고 물놀이를 하다 엄마의 도시락을 먹고, 돌을 들추어 가재를 잡았던 기억은 아스라하지만 가족과의 멋진 추억을 선물한 곳이다.

좋은 기억 속의 정릉, 그곳을 지키며 사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적은 예산을 알뜰히 쓰려는 편집위원들의 요구를 맞추느라 나도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가슴 따뜻한 소중한 책이기에 기꺼이 내 일처럼 함께 해 벌써 일곱 번째 능말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책 속의 정릉사람들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 빛바랜 옛날 사진들이 너무 정겹다. 오래된 동네답게 좁은 골목길 바닥은 갈라지고 그 속을 비집고 자란 들꽃들, 정돈되지 않은 지붕들 위로 소복한 하얀 눈, 벽화로 새로 단장한 옛 벽들, 모두가 정겹고 정릉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느껴진다. 오래오래 지켜지고 정이 넘치는 마을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책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하는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래된 정능골처럼 나도 오래 이 일을 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봉사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짝사랑(?) 입니다

김두임 정릉 주민

정릉3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에서 정릉3동 적십자 회장님(정필남)을 만났다.

Q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봉사활동을 25년 이상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봉사활동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A 반갑습니다. 봉사활동도 짝사랑처럼 설레임이 있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몸이 아파도 봉사 갈 날만 되면 아픈 곳이 싹 없어지지요.(웃음) 그래도 가족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지요.



적십자 활동의 이모저모

Q 적십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도주의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는 1년에 한번은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받습니다.

저도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A 그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적십자는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글로벌 인도주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은 크게 구호, 사회봉사, 지역보건, 안전, RCY(청소년 적십자), 국제협력, 남북교류, 적십자 아카데미, 국제 인도법 보급, 병원, 혈액, 원폭 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지원 등으로 나누어 활동 하는데 적십자 회비는 이들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국제 적십자 운동이 시작 되었나요?

A 국제 적십자 운동의 기본 원칙은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입니다. 대한적십자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의 제네바 협약(1864년)에 가입한 것을 바탕으로 1905년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설립되었습니다. 병원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시작한 대한적십자사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서도 독립군과 재외 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한국 전쟁 속에서도 피난민, 부상병, 국민자 등을 위한 의료 구호 활동과 전쟁포로 교환 등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Q 정릉3동에서는 적십자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원들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주로 주민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적십자 소식을 공유하고 정릉3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봉사 할 일들을 의논합니다. 봉사활동은 주로 반찬 만들기, 떡 만들기, 빵 만들기 활동을 봉사관에서 하고 그 외 희망풍차 나눔, 마을 청소 등 마을이 필요로 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반찬은 주 2회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며 빵 또한 직접 만들어 월 4~5회 어려운 청소년들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Q 그 대신 보람도 많겠습니까.

A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갖는 보람이 훨씬 큼니다. 물품 만들기를 하면 배달까지 완료해야 할 임무라 어려움도 많지만 이를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더워도 추워도 멈출 수 없는 봉사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말벗도 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살펴본다는 것은 그 어떤 보람보다도 가슴을 뛰게 하는 큰 기쁨입니다. 노력한 만큼 쌀도 지원받고 라면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 읽은 것은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읽고

이상림 주민기자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은 누구일까? 노인이 연애 소설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목부터 많은 것을 궁금하게 했다.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나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 등 '책'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나 노인이 망망대해에서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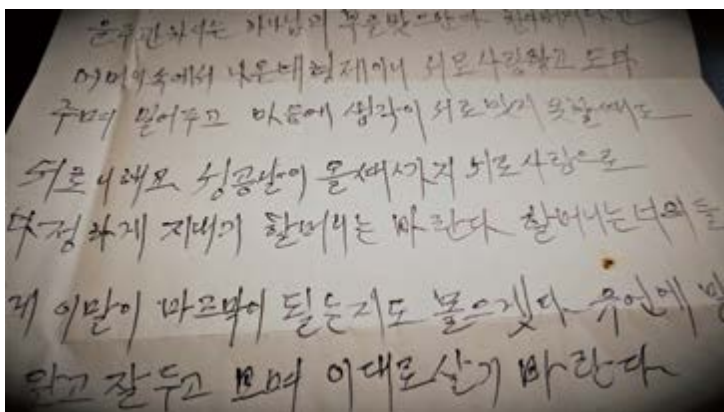
다> 생각도 났다. 모두 추리 소설적 요소가 있어 비밀스럽고도 흥미진진했었다. 노인은 사실 인생의 경험과 지혜의 산증인이고 캄캄한 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이다. 나에게도 그런 멋진 할머니가 계셨다. 나의 할머니는 글을 쓸 줄 아셔서 손녀에게 편지를 많이 남기셨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은 이렇게나 대단하고 멋진 일이다.

어서 소설 속 노인을 만나보자!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

그것은 그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늙음이라는 무서운 독에 대항하는 해독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읽을 줄 알았다.” -72p-

주인공인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아마존의 페루 접경지대 ‘엘 이딜리오’라는 동네에 살며 생존에 필요한 사냥으로 생활하는 노인이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함께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아내는 궁핍한 생활고로 죽



내 할머니의 손편지

게 된다. 주인공도 밀림에서 뱀에 물려 맹독으로 죽을 뻔했으나 원주민 수아르족의 도움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의지할 데 없는 젊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그들과 생활하며 그들로부터 밀림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생존 방법을 터득한다. 원주민 인디오만큼이나 용맹스러웠던 주인공은 서서히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어느날 우연히 자신이 글을 쓸 줄은 모르지만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져드는데, 노인에게 가장 감동을 준 책은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사랑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플로렌스 바클레이의 <로사리오>를 펼쳤다. 그 책은 어찌면 그가 진작부터 찾아 헤매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책에 담긴 것은 사랑, 온통 사랑이었다. 그 책은 등장인물들의 아픔과 인내를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으로 묘사해 놓았는지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에 돋보기가 흥건히 젖을 정도였다.”

-83p-

아마존의 우기가 시작된 어느날 무언가로부터 습격당해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

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몇 명의 희생자가 주검으로 발견되고 급기야 동네 읍장과 사냥꾼 그리고 숲 전문가인 노인으로 이루어진 추격대가 꾸려져 숲으로 들어간다. 노인은 인간을 공격한 것이 새끼를 잃은 암컷 살쾡이라고 판단한다. 숲에 사는 생명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간 추격대는 결국 총알만 허비하고 노인에게 살인 살쾡이 포섭을 맡긴 채 숲을 떠나 버린다.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는 밀림에서 노인과 암컷 살쾡이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우기가 들이닥치는데 사냥을 나서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될 짓이요? 어린 짐승의 가족에 뚫린 총구멍을 보시오. 당신은 수아르족을 의심했지만 정작 욕을 얻어먹을 놈은 그들이 아니라 여기 뒹져 있는 양키놈이요. 이 빌어먹을 백인은 사냥이 금지된 기간에 사냥을 나섰고, 사냥이 금지된 짐승까지 총으로 쏘 죽였던 말이요.” -35p-

소설은 노련하고 지혜로운 노인의 시선을 통해 적수인 살쾡이를 바라본다. 마치 소설 속 슬픈 주인공의 마음을 헤아리듯 새끼를 잃은 암살쾡이의 심리를 읽어 나간다. 작가는 때론 환상적인 기법으로 때론 매우 사실적으로 밀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군더더기 없이 빠른 속도감으로 엮어 나간다. 자연에서의 삶과 죽음의 의미,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연과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 깊고도 흥미진진하게 다룬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할 일을 마친 노인처럼 강이 보이는 오두막 창가에 앉아 슬픈 연애 소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든다.

이름도 낯선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는 칠레에서 태어나 피노체트의 군사정권 하에서 반독재 운동에 참여하다 살기 위해 도망을 쳐야 했고 그 후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며 기자 활동을 했다. 세풀베다는 1989년에 이 책을 내면서 살해당한 환경 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이라고 했다. 그만큼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이용하고 해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노인은 느닷없이 화가 난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강물에 던져 버렸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금속성의 짐승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 168p -

작가소개



루이스 세풀베다는 1949년 칠레 북부 오바예에서 태어났다. 그는 군사정권하에서 반독재 반체제 운동에 참여하다 수감되었고, 결국 당시 많은 칠레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로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노체트의 나라에서 도망쳐야 했다. 수년 동안 그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유네스코 기자 등으로 활동했고, 1980년 독일로 이주했다. 1989년 세풀베다는 살해당한 환경 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출간과 동시에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독자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는 추리 소설적 기법과, ‘양키’로 대표되는, 자연과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한 적대감 등도 이후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며,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1997년부터 스페인 북구 아스투리아스 히혼에 정착하여 작가 겸 영화감독, 출판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버지, 그리고 추억

이상희 주민기자



즐거운 소풍

추억 I

“물 속에서 나오는 놈에게 던진다아아~~~”

아버지의 손에는 짱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 수영을 배웠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어렸던 우리들(셋째, 넷째언니, 나)을 대반동 바다 속에 집어넣고선 수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계셨다.

우리는 겁에 질려 물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바다 속에서 물을 먹고, 토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물에 뜨고, 결국 어찌어찌 하여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반나절은 족히 물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 때 아버님의 손에는 큼지막한 짬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도 짬돌에 맞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기억만큼은 생생하다.

어릴 적 우리집에는 칸나, 해바라기, 사루비아, 다알리아, 물망초 등이 흐드러지게 피는 작은 꽃밭이 아담하게 있었다. 꽃밭에서 아버지는 카루소, 스테파노와 같은 당대의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르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솔리미오」 등의 노래를 틀어놓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따라 부르셨다.

그 곳에서 큰언니는 그림을 그리고 작은언니와 나는 분꽃의 씨를 따서 가루를 만들어 화장을 하고 사루비아의 단물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머니는 호박밥을 지으시고 할머니는 양념장을 만드시느라 돌절구에 고추를 가셨다. 밥이 다 되면 우리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둘러앉아 매워서, 뜨거워서 호호거리며 호박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꽃밭 속에서 어머니, 언니들, 나를 세워 놓고 당신이 직접 지휘를 하시며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치셨다. 「오빠 생각」, 「희망의 속삭임」, 「니나」, 「등대지기」 등의 노래였는데, 중창으로 가르치셔서 우리 가족은 여러 번 방송곡 노래자랑에 출전하기도 했다.



추억 Ⅱ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던 귀염둥이 치와와 쫘. 생후 3개월에 족보를 들고 우리집에 온 곱슬머리 세리, 마당에 묶어놓은 셰퍼드 케리, 창고를 지키던 고양이 복순이와 복돌이, 할머니가 모이를 주며 키우는 닭, 아버지가 사냥 가서 잡아 온 꿩과 토끼까

지. 우리집은 동물의 왕국이었다. 사랑했던 강아지 세리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보살폈던 생각, 잘 자랐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때 교회 뒷동산에 묻어 십자가를 세워 놓고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동물의 왕국」TV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는데, 같이 보는 시간이 많았다. 화면에는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했다. 적이 나타나면 스스로 보호를 하며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고, 병이 나면 정글 속 온천에 아픈 몸을 담그고 앉아 있는 모습이 엄마로부터 낳아서 성장하고 늙어 가는 것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와 담소



추억 Ⅲ

우리집은 아들이 없다. 외아들인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고 딸 다섯을 두셨다. 엄마는 막내인 나를 낳고 미역국도 드시지 않고 우셨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예쁜 딸을 낳고 왜 안먹느냐며 딸이어도 괜찮다고 하셨다.

나는 어렸을 때 남장을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보곤 했다.

“너는 앉아서 쉬하니, 서서 누니?”

어린 나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서서 누워요” 했다. 그 날 이후 남자아이처럼 오줌을 누다가 바지가 젖는 실수를 했고 그 바람에 오줌싸개처럼 바지가 젖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바지를 갈아입고, 어느 날은 키를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갔던 기억도 있다. 빗바랜 사진 속의 나는 하이칼라를 하고 남자 아이 옷을 입고 있다. 아버지는 세퍼드 캐리의 줄을 잡고 언니와 남장을 한 내가 웃고 있다.

짱돌 하나로 수영을 가르치셨고 꽃밭 속에서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셨던 아버지가 새삼스레 더욱 그리다.



어렸을 때 남장을하고

능말 발언대

- 가장 고통받는 청수장 사람들의 도덕, 정릉공영차고지
- 마을과 청소년을 잇는 정릉 청소년 휴카페
- 변화하는 정릉천변 풍광



가장 고통 받는 청수장 사람들의 도덕, 정릉공영차고지

윤미연 정릉 주민

3년 전, 느닷없이 등장한 ‘시인의 마을’ 및 차고지 지하화 건립공사 안내에 의구심이 들었다. 나에게 이것에 대해 질문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묻지 말고, 이미 정해진 것이니 알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마을 한 가운데 들어서는 커다란 시설물에 대해서 묵인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주변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혼자 1년을 의문에 쌓인 채 지내다가 2018년 3월 정말넷 월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공감한 몇 분과 함께 작은 모임을 꾸렸다. ‘정릉동공영차고지건립공사 재고주민모임(정공차)’이다.



정릉4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정릉4동에는 229대의 버스가 박차를 한다. 대진여객 12개 노선의 179대와 정릉공영차고지 7개 노선의 50대다. 차고지는 5개에 이른다. 명실공히 ‘차고지마을’이다.



정릉동공영차고지건립공사재고주민모임(정공차) 회원들의 캠페인(개울장 행사에서)

정릉4동에 이렇게 많은 차고지와 시내버스가 밀집해 있는 사정은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의 관계공무원들 뿐 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해온 말은 ‘어쩔 수 없으니 감수해 달라. 보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짓겠다.’였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었다.

스스로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이웃 동네에, 구에, 시에.

과연 차고지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를, 그런 도덕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2018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3~4월 구청시청 방문, 자료청구, 5월 1차서명운동과 설문조사, 6월 주민토론회, 7월 기자회견, 8월 박원순 시장 삼양동 면담, 9월 성북구청 간담회,

9~10월 2차서명운동과 1인 시위, 11월 성북구청 주민설명회, 12월 박원순 시장 간담회와 일일카페 모금행사, 게다가 매주 화요일 주간모임을 진행했다.

노력 끝에 12월 10일 '정릉공영차고지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박원순 시장과의 지역주민 간담회'가 열렸고, 2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성북구청에서는 10명의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었고 초대되지 않은 주민들의 간담회장 입장을 막았으나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MBC에서 생중계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았듯이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 속의 말을 쏟아내게 마련이다. 정릉은 정주성이 높은 지역이라 20~30년 거주한 사람들이 많다. 그 분들은 마을에, 집 옆에 차고지가 들어서고 CNG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이다.

“타 지역 버스들까지 들어와 박차하고 충전하니 정릉4동은 피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할 동네가 되었다”



“이차선 도로를 하루에도 수백 대의 버스가 왕래하니 매연, 소음에 살 수가 없다”

“발전에서 소외된 정릉지역에 땀질 식 수해를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해 달라”

“정릉공영차고지는 현재 교육법, 환경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

“2006년 평창동에서 무산된 차고지가 2009년에 여기로 아무도 모르게 넘어왔다”

“예전에 차고지와 충전소가 들어올 때 많은 주민에게 공론화하지 않고 소수만 알고 무마했다”

“비어있던 이 택시차고지를 교회에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다 성사시켜 놔는데 갑자기 모의의원이 들어서서 비싼 가격에 서울시가 매입했다”

“한 동네에 차고지를 다섯 개나 넣는 것은 너무하다”

주민들의 호소에 박원순 시장은 당황한 듯 했다. 주민들에게 기존의 계획보다 조금 더 제안할 것을 준비해 왔던 시장은 말문을 열지 못했다. 주민들이 감내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주민과 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라 얘기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정공차’와 청수장 주민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나타나 차고지를 찬성한다며 ‘조속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현수막을 내걸었다. 성북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 공문을 보내 ‘정공차’ 몫의 명단 10명을 내놓을 것을 종용했다. ‘정공차’라는 협의체가 이미 존재하니 관에서 합류하기만 하면 이것이 위원회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차고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반씩 구성하자고 했다. 일견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채택하는 원칙, 이것이 과연 항상 옳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라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한 범주에게는 이익만, 다른 범주에게는 이익과 고통이 공존하는데 같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가?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여야하지 않는가? 다수가 찬성한다고 가



서울시청 도로교통과 등에서 협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성북구 삼양동 서민주택 생활을 체험하고 있을 때 '전공차' 회원들이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장 교통 받는 자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가 정답을 내놓지도 않고, 성북구청도 서울시청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덮어두면 손해는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는 듯이.

2019년 1~3월 성북구 주관 찬반단체 간담회, 4월 1,2,3차 주민결기대회와 최정순 시의원의 시정질의, 9월 '마을은 지금_정릉4동 공영차고지편' 다큐멘터리 촬영, 박원순 시장에게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5,000인' 서명지 제출, 10월 정릉4동 현장구청장실에서 이승로 구청장에게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5,000인' 서명지 제출.

우리는 끊임없이 몸짓을 이어갈 뿐이다. 사실은 이렇다는 것을 결연히 보여줄 뿐이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성북구청에게, 서울시청에게 남아있는 한 줌의 도덕으로 비추어 교통 받는 자의 짐을 덜어 주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포기할 수도 없다.

마을과 청소년을 잇는 정릉 청소년 휴카페

최용근 휴카페지기



청소년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에서
놀고 배우는 활동을 해왔던 청소년 휴카페

정릉 청소년 휴카페는 2016년 서울시 공간사업 휴카페를 시작으로 서서히 마을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며 먹거리와 쉼을 제공했던 정릉청소년 휴카페는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년들에게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2018년 성북 문화재단을 통해 휴카페 카페지기로 “담팀”(최용근 김다미)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담팀은 청소년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으로 마을의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평소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민을 들어주는 힐링의 장소로서 휴카페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에서 놀고 마을에서 배우는 활동을 지속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을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은 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청년들은 마을에서 청년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에는 큰 변화

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을에 정릉 청소년 휴카페가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며 마을의 공유 공간이었던 정릉 청소년 휴카페는 2019년 성북구청에서 성북문화재단과의 정릉 청소년 휴



청소년 휴카페는 마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페가 성북구청의 일방적인 통보로 문을 잠시 문을 닫고 휴카페 공간 일부분을 성북아동 청소년 센터의 사무실로 바꾸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던 공간이 사라짐에 서운함과 분노를 포함해 많은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해 휴카페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휴카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2019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카페가 문을 열게 되었지만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꾸며진 휴카페는 이전보다 놀거리도 많아지고 외관상 깔끔해지긴 했지만 마을과 휴카페의 연결점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구청과 주민 간의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어느 순간 휴카페는 불편한 공간이 되기 시작했고 지역성이 사라지면서 세대 간의 교류와 대화 또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릉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구청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이 되면 휴카페의 카페지기가 또 다른 인원으로 바뀌게 되고 또 다시 운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마을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



청소년 휴카페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과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현재 상황을 비난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 한 청소년 친구는 ‘마을에서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청소년들에게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말해주고 대신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휴카페 문제를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청소년 친구들은 어른들이 결정한 결과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공간을 위해 문이 닫혀있는 휴카페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구청장에게 민원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소중한 공간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 했던 장소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시간은 많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공간으로 마을의 공간이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정릉천변의 한 풍경. 금년에 천변 산책로 연장공사가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정릉천변 풍광

김란기 주민기자

연말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날 정릉천변 한 기사 식당은 줄을 서야 할 만큼 분빈다. 마치 현장식당(함바집, はんば)처럼 근처 공사현장의 인력들이 점심시간에 몰리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본래 9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천변 산책로를 봄부터 막아두고 하던 공사가 10월과 11월을 건너, 연말을 앞두고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한 큰 교회 앞 화장실 개축공사인데 여

기에 계단형 스탠드를 추가하면서 교통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화장실은 천변산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었던 것인데 산책자들이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위치가 높고 오르내림이 불편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시공 중인 새 화장실도 여전히 산책로로부터 거리가 멀고 높다. 다만 경사로(램프웨이)를 스탠드 사이로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접근성을 완화하였으나 잘 활용될지는 의심스럽다는 것이 동네 촌평이다. 어쨌거나 연말 안에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주민들, 산책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릉천을 중심으로 인근의 풍경이 변화하는 모습은 이외에도 정릉시장 중심에 데크가 조성되어 인근의 좋은 놀이터가 되었고 가끔 문화놀이도 행해지고 있다.(글 참고)

한편 개인들에 의하여 2019년의 정릉천변의 풍광이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릉3동 315번지 언덕 위에 빌라(다가구주택)이 두 동 올라선 것이다. 이제까지 낮은 자세로 언덕을 내려다보던 허름한 옛주택이 개발업자의 손에 넘어가 대형 빌라가 되어 일대의 경관에 변화를 주었다. 말하자면 스카이라인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경관을 망쳤다는 하마평을 내놓고 있다.

정릉 파출소(보국문역) 뒤편 정릉천변 역시 경관이 바뀌고 있다. 3년째 공사중지 상태로 흉물스러웠던 한 빌딩(근린생활시설)이 공사완료를 앞두고 있다. 5층 높이의 이 건물은 정릉3동 유명 골목 안 멋진 소나무 옆 한 카페의 바로 옆인데 이러저런 사정으로 표류하다가 정릉천을 건너는 다리가 새롭게 놔지면서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건물벽에 1.5평 원룸을 임대한다는 현수막까지 붙었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소나무골목과 천변 산책로가 연결되는 골목길이 형성된다고 한다.



경전철 보국문역 인근 정릉천변의 변화(공사전)



이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언덕 위에 빌라 건물이 올라가고 교회 앞에는 교통광장이라 하여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정릉3동 주택이 여기저기에 원룸형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혹시 공급과잉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근에 국민대학교와 서경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이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 개발붐을 촉진시키고 있다는데 요즘은 분양 혹은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음을 곳곳에서 볼 때 주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닐까! 주차장 등 인프라(기반시설)가 충분치 않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자면 이런 개발 붐이 아주 반가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정릉3동의 정든마을에 70년 전에 지어진 부흥주택이 소리소문없이 헐려나가고 원룸, 투룸 빌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정든마을 주민시설을 신축으로 지으면서 성북구청도 한몫했다.



포토에세이



김:여보세요? 찾아봤는데 사진들이 좀 쓸쓸한데...

이:음, 사진만 좋으면 저는 괜찮을 거 같아요!

언제일까

쓸쓸함을 외면하지 않게 된 때가







‘길을 걸으면 마른 가지 흔들리듯 다가드는
 수많은 쓸쓸을 만나네
 사람들의 옷깃에 검불처럼 얹혀 있는 쓸쓸을
 손으로 살며시 떼어주기도 하네
 지상에 밤이 오면 그에게 술 한잔을 권할 때도 있네
 그리고 옷을 벗고 무념(無念)의 이불 속에 알몸을 넣으면
 거기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나를 끌어안는 뜨거운 쓸쓸’
 -시 <쓸쓸> 申 문정희-

2019 우리들의 이야기

결혼했어요

목소영 주민기자

어릴 적 친구였던 주례사제 중 한 분인 김아오스딩 신부님은 “목소영이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했다. 혜화동 성당을 꽉 채워주신 축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맞아, 얼굴은 웃음만발~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 많은 지역 주민들의 축하를 받았고, 정릉의 애뜻한 관계-능말이야기 식구들도 일찌감치 자리해 날씬해진 신부를 보며 놀랐다는 후문. "깨소금 솔솔 볶으며 잘 살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찬양공연 올려퍼지다

이상희 주민기자

2019년 12월 세브란스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매년 찬양 공연 때마다 많은 관객들의 기록을 경신합니다. 연예인들이 오는 것 못지 않은 상황을 파악한 듯한 세브란스 측도 놀랐고, 우리도 그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서 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더불어 세브란스 측에선 이전엔 한 번도 없었던 차량 주차비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걸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의 시간과 정성의 결실임을 실감했습니다.

이사하는 심사(心事)

이상립 주민기자

2019년 3월 4일, 1997년부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을 살았던 성북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구로구로 이사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결심하기는 했지만 나 자신도 이곳을 떠나는 모험을 하고 싶기도 했다. 한강을 건너 서울을 가로질러 전철로 시간 반 떨어진 곳, ‘이사’라기 보다는 ‘이주’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이다.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고르는 일일 것이다.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등 위치와 크기, 예산, 아이들의 통학 거리 등 고려할 사항이 정말 많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결국 우리는 조금 (아니 많이) 낡았지만 뒷마당이 있어 동네 고양이들이 들락거리는 2층으로 된 단독 형태의 집을 선택했다. 이사 후의 많은 일들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지만 조금씩 예쁘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 지상으로 달리는 1호선 전철과 영등포역, 노량진역, 남영역 등 오래된 역사도 반갑고, 지하철에서 바라보는 한강 풍경도 감동이다. 번두리 동네라 시내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서남쪽으로 이동한 덕에 인천 개항지나 오이도, 강화도 등 서해 연안의 도시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공기, 새로운 공간이 나에게 또다른 경험의 나이트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사 후 맞는 봄



바닷바람이 시원한 강화에서

비트에 맞추어

홍선희 주민기자

1월 13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시민참여평화뮤지컬 <A Common Beat>에 출연했는데 최연소자와 무려 50년 터울. 8월에는 한성대역 분수광장에서 가야금병창과 경기민요를 공연. 10월 5일 노원탈축제에서 포크댄스 공연. 그런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나의 외출, 봉사활동

선희자 주민기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올해도 나의 외출은 늘 봉사활동이었다. 물론 능말모임 참여도 생활의 활력소이다.

무환수화분을 나누며

장영춘 주민기자



능말이야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틈틈이 공부하여 올해(2019) 6월에 관상어관리자격증을 취득했다. 7월에는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무환수시스템을 판매도 했다.

능말모임 회원들의 기념할만 한 날에 무환수화분과 비료를 나누어주어 멤버들과 우의를 다졌다.

천변 서식처 수리

김란기 주민기자

처음 시작은 9학년 할머니가 문간방에 세 들어오는 일로 시작되었다.

무려 9학년이라니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머니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측에서 간곡하게 요청하고 역시 9학년이 7학년처럼 정정하시니 오케이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것은 집이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살짝 시작한 것이 계단을 고치고 손스침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간이화장실을 만들고 보일러를 고치며 간단한 집수리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앞을 지나다니는 많은 산책자들이 이 집을 보고 카페냐? 카페하면 좋겠다, 언제 만들거냐 이구동성으로 유혹하매 결국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 아래층(반지하)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정릉동 동네 목수(잡수라함이 타당)님을 한 분과 그시다 한분 모시고 봄부터 겨울까지 진행한 것이 정릉천변 서식처 집수리였다. 어떤 공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스무날 남은 올해 안에 신장개업하길 기대한다.

복지협의체 활동

정필남 주민기자



적십자활동에 이어서 정릉3동 복지협의체에서 분과위원장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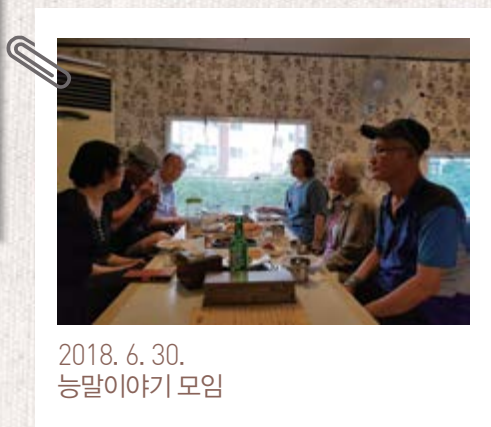
대단히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의 고령자 및 홀몸 노인들, 그리고 넉넉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2018. 4. 21.
능말 우이동 삼각산 마을 탐방



2018. 3. 31.
하트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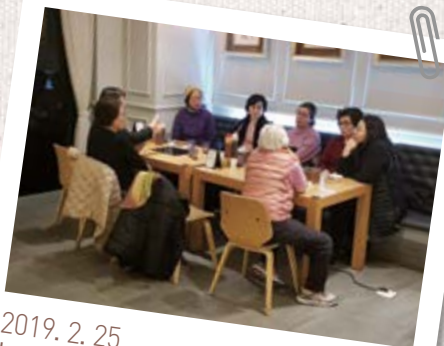


2018. 6. 30.
능말이야기 모임





2018.10. 27.
능말 모임 돈까스캠프



2019. 2. 25.
능말 모임



2019. 3. 13.
능말 준비모임 익선동



2019. 4. 10.
서울마을미디어센터 간담회



2019. 7. 16.
능말이야기 편집회의
신설동 호텔 베니키아



2019. 9. 9.
아리랑시장 호박넝쿨책 인터뷰



2019. 9. 9.
아리랑시장 호박넝쿨책 인터뷰



2019. 9. 29.
능말이야기 모임 돈카스캠프





2019. 10. 8.
서울마을미디어센터 현장방문 간담회



2019. 11. 4.
능말모임 청년식당



2019. 11. 12.
능말이야기 인쇄 협의 진애드



2019. 11. 20.
능말이야기 편집회의



2019. 11. 20.
아리랑시장 보나칼롱 능말이야기 방문



2019. 11. 30.
능말이야기 월례모임
정릉집 아래층 끼데께데



2019. 12. 5.
능말이야기편집회의 진애드



편집후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 했던가.

맑고 투명한 구슬들이 빛나는데 어떻게 잘 꿰어야 보물이 될까.

올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서마미센)에 지원을 받기 위해 '능말 이야기'의 발간 기획을 제출하면서 예년보다는 좀더 잘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건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야 본격 작업을 시작되었다.

올초 서마미센에서 지원사업 설명회 때 종이 잡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서말구슬을 모으는 일도, 그것을 꿰어 보물을 만드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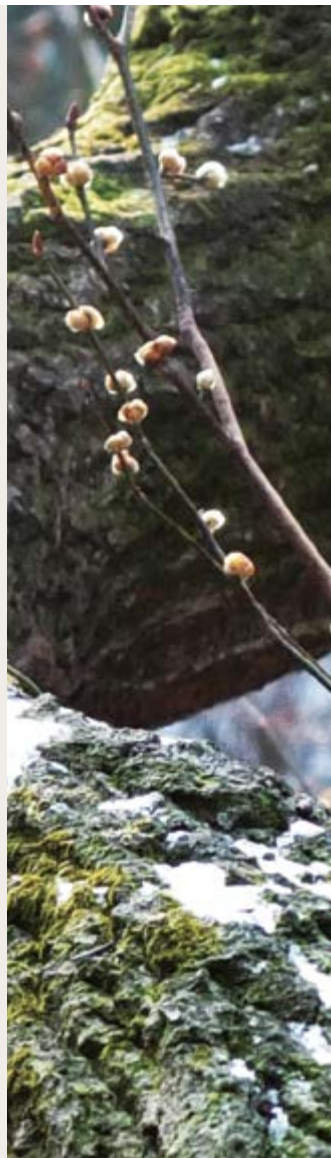
더욱이 좀더 잘 만들어보겠다는 욕구는 발과 손이 먼저 따라주어야 하는데 일상의 일들은 그리 호락호락 시간과 노력을 허하지 않았다. 다행히 전 편집장인 이상림씨가 현 편집장인 나보다 더 열심히 뛰고 앞장서 나갔기에 그나마 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서마미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상림씨의 힘이 컸다.

능말이야기에 대한 인상은 벌써 기억이 되어 연말이면 충무로 인쇄 골목을 떠돌며 헤매던 기억으로 가득하고 다음부터는 추위에 떨지 않고 어떻게든 해뵈야겠다는 희망은 올해도 반복되었다.

그래도 올해는 월드와이드한 내용도 한 폭지 있고 국가와 지역적인 논의도 좀 있으니 정릉만의 이야기에서 조금은 발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혹은 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있으니 나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싶다. 이제 서말 구슬 각각이 반짝이기를 바란다.

편집장 김란기





2019 일곱번째

능말이야기

발행처 | 능말이야기

발행인 | 홍선희

편 집 | 김란기 | 이상림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이메일 | jeongneungstory@hanmail.net

디자인 | 진애드 02-2264-0608

함께 한 능말이야기 회원

김란기 | 목소영 | 박영준 | 선희자 | 신정혜 | 양순임 | 계명관
이상림 | 이영자 | 정필남 | 허만선 | 홍선희 | 장영춘 | 이상희



능말이야기

정릉을 재미난 동네,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능말이야기 활동을 함께 하실 주민을 기다립니다.

■ E-mail : jeongneungstory@hanmail.net ■ T : 010. 8713. 5895